

서남권 · 동북권 르네상스로 도시균형발전이 실현됩니다.



권역별 르네상스 지역발전소식



2011년 6월호(통권 25호)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발전계획추진반

◇ 서남권 르네상스

- 서울시, 양화대교공사 내년 3월까지 중단 없이 완료 p 1
- 마곡지구,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 본격착수 p 2
- 서울시, '서남병원' 진료 개시로 서남권 공공의료 기능 강화 p 4

◇ 동북권 르네상스

- 창동 골프연습장, 12년만에 주민공원으로 돌아와 p 4
- 「성수IT종합센터」 유망 IT기업, 본격 입주 p 6
- 오세훈 시장, “강북에 균형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p 7

◇ 알립니다

- '시민과 함께 만든 서울휴먼타운 2년 이야기' 책으로 나온다 p 8
- 세종로 공원 '한글 글자 마당' 밑그림 완성 p 9

서울시 양화대교공사 내년 3월까지 중단없이 완료

- 하류측 마무리에 이어 상류측 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중단 없이 완료
- 동북아 수상관광 중심지 도약 기회 상실할 수 없어
- 중단 시 기 투입한 공사비 318억 원 혈세낭비와, 107억 매몰 비용 초래
- 좁은 교각 폭 유지되면 유람선 등의 안전운행 위험성 여전히 상존
- 시, 빠른 시일 내 상·하류측 공사 모두 완료해 시민 불편 최소화할 것

완료하겠다고 5월 31일 밝혔다.

양화대교구조개선 공사는 단기적으로는 상존하고 있는 선박 운항의 충돌 위험과 장기적으로는 한강을 서해벚길 사업과 연결해 서울을 동북아 수상관광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양화대교 경간 폭을 42m에서 112m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상·하류측 아치교량을 각각 진행하며, 이 중 서울시는 지난 5월 4일 하류측 아치교를 개통한 상태다.

서울시는 양화대교 사업 추진의 근거로 ▲서해벚길 사업을 통한 동북아 수상관광중심지 도약 ▲혈세낭비 방지 ▲시민안전의 세 가치를 꼽았다.

서울시는 양화대교 하류측 아치교량 공사를 마무리한데 이어, 상류측 교량도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중단 없이

동북아 수상관광 중심지 도약 기회 상실할 수 없어

첫째, 서울시는 서울이 동북아 수상관광 중심지 및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서해벚길 사업은 서해바다에서 한강에 이르는 벚길을 통해 동북아 관광 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1년 10월 경인아라벚길이 개통되는데 서해벚길이 열리지 않으면 배가 김포까지만 들어오고 한강은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서울시는 경인아라벚길을 통해 한강을 서해바다와 연결해 서울을 항구도시와 매력적인 수변도시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 도시경쟁력을 최대화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단 시 기 투입한 공사비 318억 원 혈세낭비와, 107억 매몰 비용 초래

둘째, 전체 사업비 415억 원(예비비 포함)의 76%인 318억 원을 투입해 하류측 공사를 마쳤는데, 나머지 공사를 마저 완료하지 못할 경우 혈세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기형적인 교량이 탄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하류측만 아치교량을 설치하고 중단할 경우 양화대교는 절름발이 비대칭의 기형화된 교량으로 남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될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업이 중단되면 107억 원의 귀중한 혈세가 아무런 효과 없이 낭비(매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즉, 현재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상류측 아치교량도 설치가 불가해 고철덩어리로 버려질 수밖에 없으며, 우물통 보강을 위한 가물막이 설치 및 철거비용 등 즉시 매몰되는 비용 46억원과 나중에 재공사추진 시 아치교량을 다시 제작하고 가물막이 및 가설교량 재설치, 바지선 등 수상장비 재임대 비용 등 61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좁은 교각 폭 유지되면

유람선 등의 안전운행 위험성 여전히 상존

셋째, 하류측 공사만 완료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상류측 교량의 하부는 여전히 35~42m의 좁은 교각 폭이 그대로 남게 돼 한강을 운항하는 각종 선박 및 유람선 등의 안전운행에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게 된다.

한편, 양화대교는 1일 14만 4,000대의 차량이 강남북을 통행하는 주요 교량으로서, 차량을 우회시키지 않고서는 아치교량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부득이하게 c자형 가설교량을 만들어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다.

오는 8월부터 공사가 마무리되는 7개월 간 부득이 c자형 가교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지만, 서울시는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고 가교의 굽어진 정도를 완화시키는 등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양화대교 공사는 서울이 동북아 중심 국제 수상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상하류측 아치교량 2개를 모두 완료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양화대교 완공후 조감도>

(도시기반시설본부 ☎ 3708-2544)



**마곡지구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 본격 착수**

- 1조 2천억 규모의 9개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공고
- 금년 9월 착공하여 2014년 상반기 준공 예정
-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차별화된 디자인 적용

서울특별시 SH공사는 5월 31일 1조 2천억 규모의 마곡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시행했다.

5월 31일 공고된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공고는 9개 단지로서, 7개 공구로 나누어지며, 도금액 약 1조2천 억원으로 올해 공공부문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물량 중 최대 규모이다.

마곡지구의 전체 아파트 건립계획은 총 15개 단지, 11,353세대(분양 5,677세대, 시프트 및 임대 5,676세대)이며, 금회 발주 물량은 6,790세대로 마곡지구 전체 아파트 건설물량의 60%에 이른다. 9월 중 시공사 선정 및 착공하여 2013년 하반기 공급, 2014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잔여물량 4,563세대는 2012년 말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발주될 계획이다.

첨단복합도시 마곡지구 내 친환경 주거단지

마곡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미개발지로, '첨단 연구개발센터 유치', '아시아 비즈니스 거점 육성' 등 서울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추진중이다. 북쪽으로는 한강, 서쪽으로는 김포공항과 인접하고, 지하철 5호선, 9호선 및 인천공항철도가 대상지를 관통하며 인천공항을 통해 아시아의 대도시들로 2~5시간 내에 연결되는 등 교통의 요지로서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곳이다.

마곡지구에 건립되는 아파트는 선형녹지를 통해 물길을 단지 내로 끌어들이고, 바람길을 열어주는 개방형 배치를 통해 에너지 절감형 기후친화단지로 계획되었다.

기존 벽식구조를 탈피, 100년을 가는 주택을 목표로 리모델링이 용이한 라멘구조(기둥보 구조)를 채택하였으며 에너지효율1등급,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차별화된 디자인의 공동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는 수변공원, 연결녹지 등 대상지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특화주동을 계획하여 새로운 공동주택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생활가로변에는 돌출형 매스, 펜트하우스 등을 계획, 선형의 단조로움을 해소하고 생활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수변공원 및 녹지공원과 맞닿는 지역은 원형형태의 매스, 테라스하우스를 조합하여 조망을 극대화하고, 부드러운 곡선형 디자인을 도입, 주변과 조화된 친자연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권역별 통합 커뮤니티 시설

마곡지구는 서울시의 커뮤니티시설 복합화 정책에 따라 단지별로 계획되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등과 함께 권역별로 통합형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여 향후 거주민의 실질적 생활 편의를 도모하였다.

2014년 상반기에 첨단복합도시 마곡지구 내에 살기 좋은 친환경 주거단지가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마곡지구 공동주택단지(15개단지) 조감도>

(SH공사 마곡사업단 ☎3410-7405)



서울시 서남병원 진료 개시로 서남권 공공의료 기능강화

- 5월 27일 350병상 규모로 첫 외래진료 실시
- 저렴한 진료비와 이화의료원 교수진이 제공하는 선진의료서비스로 서남권의 건강안전망 확충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위탁기관 이화의료원, 원장 유권)의 가상·모의 진료 등 진료시스템의 작동과 안정성을 확인하고, 5월 27일에 첫 외래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신정동 1320-7번지에 위치한 서남병원은 지하4층지상8층, 350병상 규모로 건립되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가 부족했던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구 등 서울 서남권 지역의 의료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남병원은 8개과(내과(소화기, 호흡기, 신장, 순환기, 내분비),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를 갖추고, 진료개시 시 수술실, 중환자실, 재활의학센터, 내시경실, 2개 병동을 가동하며, 이후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실, 응급실, 호스피스병동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가동할 예정이다.

의료진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교수진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시립병원의 저렴한 진료비로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3.0T MRI, 128채널 CT, 초음파, 유방촬영장비 등 최신기종의 첨단 진단 장비와 의료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서남병원은 '백세 사회'를 대비한 노인성질환의 전문 진료 및 지역 내 노인보건의료센터 연계를 통한 특성화 및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등 민간병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진료기능을 대폭 강화 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 양천구 신정동에 살고 있는 주민 김은수(가명, 45세)씨는 "이 근방에는 큰 병원이 없어서 아프면 늘 멀리 가야했다. 이제 가까이 에 이런 훌륭한 병원이 지어져서 빨리 개원하길 기다리고 있다. 시립병원이라 진료비도 적게 나올텐데, 의료진은 이화의료원 분들이라니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큰 혜택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공공의료 제공에 있어 지역간 균형 및 변화되는 의료환경에 적합한 미래형 병원 모델 제시 등을 위하여 최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춘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진료를 시작하게 되어, 서울 서남권의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 및 공익 진료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병원 야경도>

(보건정책과 ☎6300-7530)



창동 골프연습장, 12년만에 주민공원으로 돌아와

- 12년 된 장기 고질민원 해결, 6월 착공해 연말까지 공원조성 완료
- 골프연습장 계획지와 배나무원 총 28,064㎡를 주민참여형 공원으로
- 인근 지역 마무리 보상후 연결시 82,000㎡ 규모 지역거점공원 기대

서울시는 도봉구 창1동 산157번지 일대 초안산공원내 기존 골프연습장 계획부지(17,851㎡)와 인근 배나무밭

(10,213㎡)에 대한 토지보상을 모두 마치고, 6월 조성 공사에 착수해 올해말까지 가족문화와 생태체험 위주의 지역거점공원(28,064㎡)으로 조성한다.

골프연습장 계획부지는 1999년 실시계획 인가 이후 민원과 소송으로 인해 오랜 기간 녹지가 훼손된 흉물스런 나대지로 남아있었던 공간이며, 배나무밭도 경작 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살포 등 문제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민원이 많았던 공간이다.

서울시는 28,064㎡의 공간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공원 조성의견을 적극적 수렴해, 지형을 살린 널따란 잔디광장과 생태계류, 암석정원, 주민참여형 텃밭, 생태교육장, 역사원, 휴게공간 등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골프연습장 계획부지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거점공원으로 변신

도봉구 창1동 산157-1번지 일대 17,851㎡는 1997년 78타석 규모 골프연습장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난 이후, 주민들의 건립반대 민원과 사업시행자와 도봉구청 사이에 행정심판과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을 거친 사연이 많은 지역이다.



<창동 골프연습장 공원조성 계획도>

현재 이 곳은 골프연습장 사업시행자가 지반조성공사까지 완료하여 기반암이 노출된 나대지 상태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방치된 상황이며,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노출된 바위들을 활용한 암석원, 지형을 활용

한 생태계류, 다목적 잔디광장, 주민참여형 텃밭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창일중학교 옆 기존 밤골어린이공원 쪽 주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면 왼편에 다목적 잔디광장과 오른편에 암석원이 자리잡게 되며, 암석원 위편 경사지에 여름철 물놀이가 가능한 생태계류와 화계가 조성되어 주변 초, 중등학생들에게 시원한 놀이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일초등학교 인근 부지에는 주민참여형 텃밭 31개소가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게 되며, 그 사이 경사진 공간에 전망데크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배나무 과수원이 자연체험공간으로

인근 도봉구 창1동 155-2 일대 배나무밭 10,213㎡도 금번에 함께 공원으로 조성된다.

공원 중앙에 486그루의 배나무가 키워지던 과수원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이 불가능한데다 농약 살포 등으로 인해 민원이 잦아, 작년부터 42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상을 완료해 이번에 골프연습장 계획부지와 함께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다.

기존 배나무 일부는 남겨 자연학습과 생태교육이 진행되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울창한 숲을 중심으로 역사원과 휴게데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 배나무밭에 있던 우물(지하수)은 골프연습장 부지에 설치될 계류에 공급될 예정이기도 하다.



<배나무 과수원지역 공원조성 조감도>

주민의 참여로 새롭게 태어나는 가족문화공원

주민들이 요구한 공원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 설계가 착수된 이후, 2011년 3월까지 10여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협의 및 설명회를 거쳤으며, 지난 4월과 5월초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와 기술심의를 모두 마치고 설계용역을 마무리 중이다.

오는 6월초 설계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공사비 30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착공해 금년 연말에 공원이 개원될 예정이며, 향후 인접지역 토지보상이 마무리되고 산책로가 모두 연결되면 초안산공원 중 창동길, 창골길로 단절된 82,000㎡ 규모의 공원 한덩어리가 모두 조성 완료되어 지역 거점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특특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접한 가든아파트(160세대)를 비롯해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주공34단지(4,566세대), 삼성아파트(1,668세대) 등 6천4백여 세대 약 2만여 주민들은 공원조성으로 직접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토지보상비가 부족해 결과적으로 골프연습장 등 민간수익사업을 유도했던 1990년대 행정의 문제점을 10여년이나 지난 이제서야 해결해 나가는 상황”이라며, “가든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의 오랜 노력에 큰 감사를 드리며, 초안산공원 사례를 계기로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별 맞춤형 공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원조성과 ☎ 2115-7589)



성수 IT종합센터 유망 IT기업, 본격 입주

- IT, BT, R&D 분야 창업 초기 기업들 대상 공개모집, 3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쳐 31개 기업 선정
- 성수IT종합센터 내 입주기업에게는 저렴한 임대료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입주기업의 성공을 통해 성수IT지구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기대

서울시는 서울형 특화산업지구(12개지구) 중 첫번째 종합지원센터로 IT산업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성수 IT 종합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공개모집, 3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31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성수 IT 종합센터」에 IT·BT 및 R&D 분야의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 공개모집(3.31~4.15) 결과 7개 기업이 입주희망 신청을 하여 평균 2.3대 1의 입주 경쟁률을 보였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3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31개의 유망 기업들을 최종 확정했다.

「성수 IT 종합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와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던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마케팅·컨설팅 △자금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먼저 입주기업들은 주변시세의 1/3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를 하게 되며, 자금조달·법률·특허·마케팅·수출·상담, 자금지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 초빙 경영특별강좌 및 현장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야별 심도있는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등 수요자 중심 교육과

창업인재 개발이 이루어진다.

「성수 IT 종합센터」에 입주기업들은 2년간 서울시의 산업육성 정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성공기업으로 탄생될 것이며 이는 성수IT지구가 IT, BT, R&D산업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성수IT종합센터가 서울의 최대 IT산업의 요람으로 발전, 성공기업의 신화가 창조되어 산업 경쟁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출발점이 되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수 IT종합센터 조감도>

(경제정책과 ☎ 3707-9317)

오세훈 시장, 강북에 균형있는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 5월 25일 중랑구 신내동으로 신축이전한 「서울의료원 개원식」 참석해 밝혀
- 연면적 99,909㎡ 지하 4층~지상 13층 623병상 규모, 23개 진료과
- 동북권 332만2천명, 특히 저소득층 8만6천명 수혜 볼 것으로 기대

오세훈 시장은 5월 25일 중랑구 신내동으로 신축이전한

서울의료원에 대한 개원식을 가졌다. 이번 개원식은 2개월간의 시범진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진료 시작을 알리는 행사였다.

「서울의료원」은 '77년 강남구 삼성동에 '서울특별시 시립강남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후 30여년 동안 강남지역 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변화된 의료환경과 의료시설의 지역별 균형배치 계획에 따라 중랑구 신내동으로 신축이전하게 됐다.

오세훈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서울의료원 신축이전으로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강북에 균형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서울시 곳곳에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 시민의 건강을 더욱 더 촘촘히 챙겨 건강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양준욱 서울시의회 부의장, 진성호 국회의원, 문병권 중랑구청장 등 관계자들과 시민 2,50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원식에선 “지역주민과 함께 오색줄 끊기”행사를 마련,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데 시립병원이 더욱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시민과 함께 다진다고 확인하였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신축한 병원 곳곳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한편, 새롭게 문을 여는 「서울의료원」은 연면적 99,909㎡의 지하 4층~지상 13층 623병상과 23개 진료과 및 8개 전문센터를 운영,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차별화·전문화된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다인병상의 비율을 82%(490개 병상)로 구성해 시민들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서울의료원 강남분원(30개 병상)의 3개 외래진료과(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및 장례식장을 함께 운영해 기존 강남

구 삼성동 지역의 의료취약계층 시민들에게도 의료서비스의 단절이 없도록 했다.



<서울의료원 조감도>

(보건정책과 ☎ 3707-9116)



알립니다

시민이 함께 만든 서울휴먼타운 2년 이야기 책으로 나온다

- 서울시, 주민이 참여한 휴먼타운 시범사업 담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설계 길라잡이」 출간
- 좋은 마을 만들기 방식의 주민 참여를 도시설계과정에서 적용한 현장의 기록
- 주민 공동체 구성 단계~계획 실제 적용, 주민의 고민·노력 등 과정 고스란히 담아
- 도시계획국 실무직원, 건축가, 관련 분야 대학교수 등 실무자, 전문가들이 집필 맡아
- 다른 유사한 도시설계 실무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기대

서울시가 지난 2년간 도시설계 전문가, 공무원, 지역주민과 함께 서울 휴먼타운을 만들어 갔던 생생한 현장의 경험담을 책으로 엮었다.

서울시는 다른 유사한 도시설계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지침서「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설계 길라잡이」 단행본을 출간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좋은 마을 만들기 방식의 주민 참여를 도시설계과정에서 적용한 현장의 기록

이 책은 도시계획 및 설계과정에 주민과 함께 한 과정에 대한 기록을 실무 지침서 형태로 제작했다.

이번 단행본 간행은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설계 관련 서적이 그리 많지 않은 현실에서 다른 나라의 경험이 아닌 우리가 겪은 우리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책은 그동안 서울시가 다양한 형태로 시도했던 도시계획 및 설계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의 과정과 성과를 길잡이 형태로 기획해 제작한 것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를 도시설계 과정에서 적용한 체험을 중심으로 작성한 현장의 기록이다.

최근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분야에서 주민참여나 주민과 자치단체, 전문가 사이의 파트너십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는 있지만,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주민참여는 주로 계획에 대한 의제기와 민원해결에 국한되어 왔고, 공간적 범위가 너무 커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주민 공동체 구성 단계~계획 실제 적용, 주민의 고민·노력 등 과정 고스란히 담아

따라서 시는 이 책 속에서 서울휴먼타운에서 시도된 경험을 토대로 공공 또는 전문가 등 마을 만들기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과 주민들 사이, 주민과 주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갈 것인지 그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도시설계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주민, 전문가, 서울시, 자치구 직원과 함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경험을 이와 유사한 계획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 휴먼타운사업 등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이나 마을길이나 담장 그리고 집을 잘 고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이해하고, 마을을 위해서 걱정하고, 생각을 모아서 결국 살만한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 지는 것, 계획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중심에 두고 있다.

도시계획국 실무직원, 건축가, 관련 분야 대학교수 등 실무자, 전문가들이 집필 맡아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실무직원들과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문가(김영옥 세종대학교 교수, 박소현 서울대학교 교수, 이석정 한양대학교 교수, 정석 경원대학교 교수, 유니경 주)코레스엔지니어링건축 도시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실무자)가 현장의 생생한 내용을 담아 집필했다.

이 책은 1장 도시설계와 마을 만들기 이해하기, 2장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설계 준비하기, 3장 함께 도시설계하기, 4장 운영하기, 그 밖의 유용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 해당하는 3장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설계의 방법론으로서 주민워크숍, 주민설명회,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대해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팁을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그 중 특히 기존 도시설계에서는 생소한 주민워크숍에 대해서는 그 기획부터 준비사항, 진행과정, 워크숍 후에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다각도에서 실무에 유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와 실제 주민이 만나 도시설계를 해나가는 과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단행본의 출간으로 서울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서울휴먼타운사업, 캠퍼스타운 조성, 기성시가지 관리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

존의 도시를 가꾸어가기 위한 도시설계)을 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며, 서울을 한층 더 '머물고 싶은 도시'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책 표지 앞부분>

(도시관리과 ☎ 6361-3538)



세종로 공원 한글 글자 마당 밑그림 완성

- 서울시, 「한글 글자 마당」아이디어 현상공모 최우수작 선정
- (주)그림디자인에서 출품한 '대한민국 문화의 주춧돌 한글'
- 우수작 '경천애민', 입선 '한글 놀이 마당', '소통의 담' 선정
- 최우수작 실시설계 거쳐 오는 8월까지 세종로 공원내에 조성, 시민개방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내에 조성하는 「한글 글자 마당」아이디어 현상공모에 (주)그림디자인에서 출품한 "대한민국 문화의 주춧돌 한글"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한글 글자 마당」아이디어 현상공모는 2011. 4. 21 ~ 5. 20까지 1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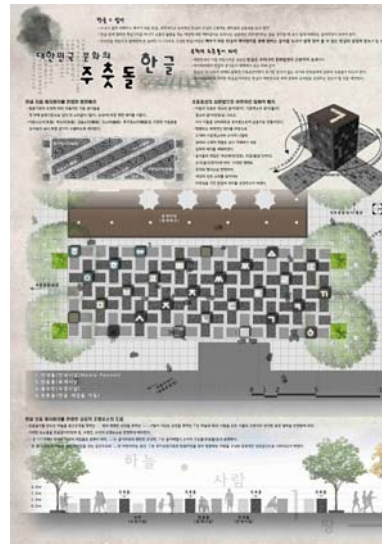
<한글 글자 마당 조성 위치 - 세종로 공원내>

한글 글자 마당이란?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초성(19자), 중성(21자), 종성(28자)으로 조합이 가능한 글자인 11,172자를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등을 포함한 국민 11,172명이 직접 쓴 글자를 돌에 새겨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우수작인 “대한민국 문화의 주춧돌 한글”은 한국적 경관과 시각적 요소를 담아내기 위해 마당이라는 공간에 주춧돌이라는 수직적 구조물 요소와 더불어 한국의 전통적 경관요소인 담장의 패턴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한글의 제자 원리와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문화의 주춧돌이 되는 한글의 상징성을 잘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우수작으로는 “경천애민”을 주제로 공동 출품한 김유경외 1명의 작품이 차지했으며, 입선작으로는 손두호씨의 2명이 공동 출품한 “한글 놀이 마당”과 NOTTOSCALE의 송준규씨의 “소통의 담”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8월까지 세종로 공원내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으로, 김준기 균형발전추진단장은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이 한글의 우수성과 상징성을 전통적 요소인 담장의 패턴과 한글의 제자원리 등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한글 글자 마당이 조성되면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새로운 상징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우수작

- 대한민국 문화의 주춧돌 한글>

(균형발전추진과 ☎ 2171-2504)

권역별 르네상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자유롭게 의견주세요 @seoulwithyou (트위터)
- ✓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http://urban.seoul.go.kr>
- ✓ 동북권 르네상스 블로그 <http://blog.naver.com/dongbukseoul>
- ✓ 서남권 르네상스 블로그 <http://blog.naver.com/seonamseoul>